

고용안정 vs 혈세지원... 'GM 철수' 해법없나

고용인원 1만6000명...협력사 합치면 15만6000명 군산 공장 폐쇄엔 생산능력 축소로 자동차산업 타격

"GM의 한국 내 장기 잔류 여부는 (한국) 정부가 가까이 자금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한국 노조가 노동 비용 절감에 동의해줄지에 달려 있다", "군산 외 나머지 영업장(부평·2, 창원 공장)의 미래는 한국 정부, 노조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주내 결정할 것."

최근 낸 압만 GM 사장이 외국 언론을 통해 언급한 내용은 군산공장 뿐 아니라 한국 내 GM의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추가 투자나 잔류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도 "지역경제와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지원해야 한다", "부실경영·고비용 탓인데 세금을 또 쏟아부어야 하느냐"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한국GM이 철수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은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GM과 협력사의 총 고용 인원을 15만6000명(2016년 기준)으로 추정했다.

한국GM이 1만6000여명을, GM의 부품 협력사(1·2·3차)가 14만명을 각각 고용했다는 계산자부추산이다.

GM의 1차 협력사 301개사가 고용한 인원만 9만3000명으로, 이 가운데 86개사(고용인원 1만1000명)는 한국GM에만 납품하는 전속 협력사다.

2차 협력사는 1000개사로 3만명, 3차협력사 1700개사는 1만7000명을 고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계청의 광공업·제조업 조사(2016년 기준)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와 부품 협력사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산업의 직접 고용 인원은 35만명이다. 결국

수치로만 보면 한국GM이 철수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할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 고용 인원의 44.6%(15만6000명/35만명)가 영향을 받는다는 계산이 가능한 셈이다.

35만명 중 국내 완성차 업체 7개사가 고용한 인원은 13만명으로, ▲현대차 6만7517명 ▲기아차 3만4102명 ▲한국GM 1만5906명 ▲르노삼성 4226명 ▲쌍용차 4833명 ▲자일대우버스 611명 ▲타타대우 상용차 1331명 등이다. 한국GM은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을 고용했다.

고용 인원 뿐 아니다.

연산 26만대 규모의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국내 자동차 생산능력은 그만큼 축소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규모가 더 큰 국내 다른 영업장까지 축소 또는 폐쇄 등의 조처를 한다면 국내 자동차 산업은 훨씬 더 심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타져나오는 이유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GM은 한때 전북경제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비중 있는 공장이었다. 군산시는 지난해 공장 철수로 인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 GM차량 사주기 캠페인을 벌였다. <군산시 제공>

금호타이어 컨셉타이어 '본'

독일 iF 컨셉부문 본상 수상

금호타이어의 컨셉타이어 '본(BON·Birth On Nature)'이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의 iF 컨셉 부문에서 본상(Winner)을 수상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디자인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iF 디자인 어워드 2018'에는 54개 국가에서 6400여개 작품들이 접수, 63명의 심사위원들의 디자인·혁신성·환경 친화성·기능성·편리성 등의 평가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했다.

금호타이어의 '본(BON)'은 자연의 뼈 구조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한 비공기압 타이어(Airless tire)로, 별집, 나뭇잎의 세포모양 같은 자연의 비정형적 패턴 구조를 뜻하는 '보로노이 구조'를 적용해 구조적 안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했다.

기존의 비공기압 타이어와 달리, 접지면 전체에 보로노이 구조를 적용, 전방향이 얽혀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어떠한 주행조건에서도 하중 및 충격을 견딜 수 있게 했다. / 김지을기자 dok2000@

수입차도 잘 팔리네

지난해 1억이상 고가차

2만3821대 팔려 최고치

지난해 1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 판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작년 한해 새로 등록된 수입차 총 23만3088대 가운데 가격(출시가 기준)이 1억원 이상인 차량은 2만3821대(10.2%)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9660대) 대비 약 21% 증가한 수치이자 수입차협회가 신규등록 대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2003년 3956대에 머물렀던 1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는 이후 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2012년(1만1028대) 처음으로 1만대를 넘어섰다. 2015년 2만2844대였던 최대 판매기록은 2년 만에 경신했다.

작년에 국내에서 1대 이상 등록된 1억원 이상 모델은 모두 150개다.

이 중 최고 인기모델은 '메르세데스-벤츠 S 350 d 4매트'으로 2677대가 판매됐다.

출시가격이 1억4450만원인 이 모델은 2016년에도 1억원 이상 모델 중 최대 판매기록(2590대)을 세운 바 있다. 이어 벤츠 GLE 350 d 4매트 쿠페(1951대), BMW X6 3.0d(1941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3.0 TDV6(1387대) 순으로 많이 팔렸다.

/연합뉴스



기아차 프라이드



현대차 투싼



현대차 싼타페

현대·기아차에 대한 외국 자동차시장의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시장에서는 만족도 높고=19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기아차는 미국 시장조사업체 제이 디파워(J.D.Power)가 최근 발표한 '2018 내구품질조사'(VDS)에서 19개 일반 브랜드 중 2위(122점), 현대차는 3위(124점)를 각각 차지했다.

기아차는 전년 대비 순위가 4계단 상승, 한국차로는 사상 처음으로 일반 브랜드 2위에 올랐고 현대차는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2018 내구품질조사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구매 후 3년이 지난 차량의 고객들이 내구품질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 177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100대당 불만 건수로 나타낸 결과로,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품질만족도를 의미한다.

현대·기아차 해외서도 잘 나가네

美 내구품질조사 기아차 2위·현대차 3위

현대 투싼·기아 프라이드 최우수 품질상

고급차를 포함한 전체 브랜드(31개) 순위에서도 기아차는 전년 대비 6계단 상승한 5위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전년과 동일한 6위에 올랐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조사에서 BMW, 아우디, 링컨, 캐딜락 등 독일과 미국의 고급 브랜드를 제쳤을 뿐 아니라 내구품질조사에서 최근 10년간 '톱3'을 놓치지 않았던 도요타(5위)를 처음으로 앞섰다.

차종별로는 현대차 투싼과 기아차 프라이드(현 지명 리오)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소

형차(Small Car) 차급에서 각각 최우수 품질상(1위)을 받았다. 현대차 싼타페는 중형 SUV 차급에서 우수 품질상(2위)을 수상했다.

◇유럽시장에서는 수상 잇따라=기아차의 고성능 스포츠제단 '스팅어'는 최근 발표된 '슬로바키아 올해의 차'(CAR OF THE YEAR)에 선정됐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슬로바키아 '올해의 차' 상은 15명의 자동차 전문가들이 투표를 통해 5대의 후보 모델을 뽑은 뒤 최종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스팅어 수상으로 기아차는 2011년 스포티지, 2012년 리오에 이어 세 번째로 슬로바키아 올해의 차 모델을 배출했다.

스팅어는 영국 '올해의 차' 선정 과정에서 '베스트 퍼포먼스'로 뽑혔고 현재 '2018년 유럽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도 올라 있다. '유럽 올해의 차'는 다음달 열리는 제네바모터쇼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전기차)은 독일 ADAC가 선정한 '최고 친환경차' 상을 받았다.

독일 뮌헨에 본부를 둔 ADAC는 독일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회원수 1500만명에 이르는 유럽 최대 자동차 관련 단체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ADAC가 105대를 대상으로 평가한 친환경 주행 테스트에서 105점(110점 만점)을 받아 '최고 친환경차'로 뽑혔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적은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궁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내담대구탕·찜

북구 문흥동 954-8번지
대구탕, 해물갈비찜, 아구찜, 전골
단체모임 환영

대표 한해숙 ☎062)471-5050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블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제주흑돼지 전문점 꽃담

동구 밤밭로 48-1 (법원 뒤편)
제주흑돼지 삼겹살
제주 오겹살 (영업시간 오후3시~)

☎062)233-9992

바른글씨교정원

북구 서암대로 186 성지빌딩 3층 전대정문사거리
약필글씨 책임교정원, 학원생 수시모집
교대, 사대, 임용반, 취업반, 강사반
원장 직접 개인지도

☎062)525-9933, 010-8703-3378

하안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동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월레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금복식당

동구 궁동 55-2(카톨릭센터 뒤)
찜탕, 계절 생선매운탕 전문

대표 김용범 ☎062)236-3177

한솔도시락 서영대점

북구 운암동 885-35번지
모든 도시락 포장가능
단체도시락 주문 받습니다.

대표 김용경 ☎062)524-6078, 010-3152-0739

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통학복지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섭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일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가득

동구 예술의길 31-16
동부고시학원 3층
뷔페백반 전문

대표 전옥희 ☎062)222-0589

무크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58호
세련된 디자인의 신상품 대량 입고
10%~40% 할인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현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예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1-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고전방

동구 궁동34-4 (중양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